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청년의 삶은 춥고 외롭다. 생활비와 학자금의 부담, 불안정하고 갈 곳 없는 노동과 저임금의 현실은 3포, 5포를 넘어 7포 세대를 자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활동가의 삶은 언제나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한다. 점점 우울해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청년 활동에 눈을 돌리고 보게 된다. '2015 시민교육포럼: 청년과 시민교육'에 참석하게 된 이유도 청년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고민 연장선상에 있었다. 필자는 갈현희망하우징(SH공사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에서 청년 관리자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곳에서 2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고 있다. 마음을 추스를 힘을 준 포럼 당일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 2015 시민교육포럼: 청년과 시민교육

# 청년세대를 진정한 미래세대로!

글 구태희 신나는애프터센터 활동가 / kttk199@gmail.com



\*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 모습.

### 민달팽이유니온과 그린캠퍼스

2015년 11월 26일 오후 홍익대학교 인근의 미디어 카페 후[Hu:]에서 열린 '2015 시민교육포럼: 청년과 시민교육'은 사회자 김재우 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인사와 참석한 사람들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주거상담 모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노동자와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피해의 은폐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상담사 양성 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했다. 주거상담 모델의 기본 구조에는 권리교육, 국내 최초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센터인 '집보쌈'에서의 주거상담을 통한 문제 발

굴, 캠페인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민달팽이유니온 상근 활동가들이 직접 교육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은 부족해 보였다. 임경지 대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주거상담사 양성 과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시민을 교육하고, 청년이 청년을 만나 스스로 접점을 만들고 수행하는, 주체를 양성하는 장이 되고 있다. 또래상담을 꾸준히 실행하며 시민과 시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했다. 그러나 임 대표는 어려움도 토로한다. 그는 "청년단체이자 민간단체로서 문제제기와 대안생성, 조정자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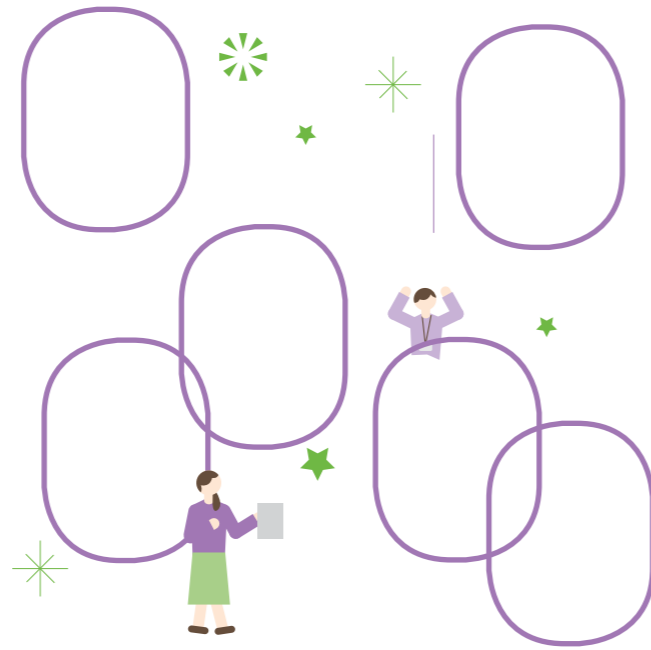
있다.”면서 “민간이 이렇게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앞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설정과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명진 학생은 ‘그린캠퍼스’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그린캠퍼스란 대학 캠퍼스를 푸르게 가꾸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캠퍼스 내의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사회운동을 말한다. 경희대의 경우 에너지 특강, 그린축제 및 햇빛축제 등의 캠페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 캠프를 통한 실천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청년주거실태조사 활동을 소개하였다. 1인가구가 많은 청년가구의 에너지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곰팡이 제거와 단열공사를 진행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롤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대학 시절 시민교육 수업이 실천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표자의 “친구들에게 그린캠퍼스 활동에 대한 소개를 지속적으로 해도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져 아쉬웠다.”는 말은, 많은 청년운동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다. 그린캠퍼스 활동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나비효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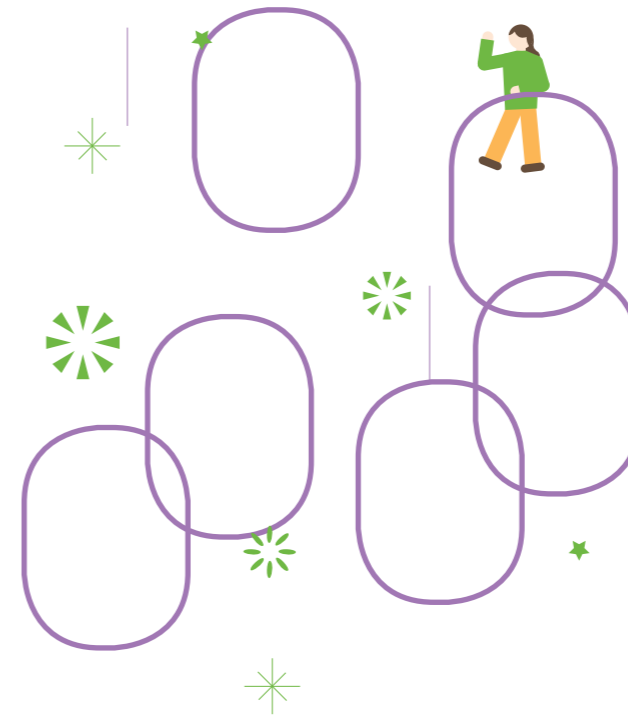
### | 청년 활동가들의 고민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이 두 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민의 지점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한살림 활동가 서동재 씨는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청년에 대한 시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졌다. 그는 “청년이라



는 계층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타기팅된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적 형태의 아웃풋 지향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시민교육으로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이주희 활동가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근본은 지역과 청년, 청소년”이라며, “교육의 방식이나 활동에서 일상성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지역은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씨는 철거와 관련한 어린 시절 경험담과, 지역사회 활동과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비교경험을 들려줬는데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그는 철거와 가난의 경험에 대해 “나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설



명하면서 “마을에서 활동하던 모든 것이 시민교육이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청년과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지지하고 인정할 것인가, 활동의 장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나 또한, 시민교육의 대상과 주체를 바꾸는 시도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 청년 문제 공론화 필요

마지막으로 청년좌파의 강승 활동가는 여러 방면에서 배제된 사람을 부르기 위해 ‘청년’이라는 담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청년들이 어떻게 인간으로 대접받을 것인가, 생존과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고민하

는 가운데 시민교육이 위치하고 있다.”면서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돈이 없고, 청년이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청년단체의 현실을 꼬집었다. 발표 사례인 그린캠퍼스 활동의 지속은 교수님들의 지원 등 지속할 수 있는 여건 덕분에 가능했다며, 청년운동에서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시민교육 활동을 열심히 함에도 주변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 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알리는 것은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고, 시민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분명 청년 시민교육의 장이 더 넓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주노리**

\* 경희대학교 그린캠퍼스의 그린축제.